

남해 이순신 순국제전 11일 개막

허귀용 기자 | 승인 2022.11.08

한시 백일장, 글짓기대회, 다양한 체험행사 마련

남해 이순신 순국제전이 11~12일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에서 열린다.

이번 순국제전은 '이순신 장군 노량바다, 평화의 빛이 되다'라는 주제로 진행된다.

11일 오전 10시 남해향교가 준비하고 전국 문인들이 참여하는 '제1회 전국 한시 백일장'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전국 어린이글짓기 대회가 열린다.

또한 기존 4일에 예정됐다가 연기된 '남해 해양관광활성화 포럼'도 11일 오후 1시 이순신 영상관 뒤 해안덕에서 특별 공간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.

행사기간 오후 6시에는 리더십체험관 내 가장 중심 공간인 '노량대전'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에 실감 영상을 입힌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선보여 미처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장면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.

한옥 매력이 담백 담긴 리더십체험관과 거북분수 일대는 남녀노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 놀이 공간으로 바뀐다. 소원을 떠오르게 하는 '나만의 등 만들기'와 어린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'보드게임',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디폼블록 만들기가 진행된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 캐릭터인 남해로 여행 온 거북이 '나매기'를 본뜬 틀로 '실크스크린'이 가능한 체험도 준비돼 있다. 집에서 각자 티셔츠나 에코백 등 인쇄할 수 있는 빈 면이 있는 물품을 가져오면 실크스크린 무료 체험을 통해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. 비치코밍 액자 만들기, 슈링클스 반지 만들기 체험 등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.

일몰 후에는 이순신순국공원 일부에 야외 경관도 조성될 예정이다.

12일에는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동심으로 데려가 줄 버블쇼와 보물찾기도 마련된다.

이번 이순신순국제전 동안 지역민 관람 편의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행사장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.

허귀용 기자

저작권자 ©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허귀용 기자